

Why Plus | 세대교체 통한 약팀의 도약...왜 힘들까?



약팀은 세대교체하기도 만만찮다. 강팀에서 기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성장한 선수들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통합 3연패에 빛나는 삼성은 김상수, 박해민, 김한곤(왼쪽부터) 등 끊임없이 선수들을 발굴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팀 리빌딩도 이기면서 해야 성공한다

삼성 김상수 불박이 주전 성장 '좋은 예' 나머지 탄탄한 8명 속 꾸준한 출전 비결
한화, 정근우·이용규 영입 리빌딩 시도
젊은 선수들 베테랑과 경기하며 성장 기대

원활한 세대교체는 모든 감독의 희망사항이다. 오랜 시간 팀의 기둥으로 활약해온 베테랑들과 잘 뽑아 잘 키운 신진세력들의 완벽한 조화는 강팀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약팀은 강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리빌딩'이라는 이름의 세대교체를 종종 시도한다. 위기에 빠진 팀의 지휘봉을 넘겨받은 신임 감독들이 직접 발굴한 유망주들을 과감하게 기용하면서 체질개선을 꾀하는 이유다. 최근 LG 양상문 감독도 퓨처스(2군)리그 4할 타자 채은성을 꾸준히 경기에 내보내 정채택던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면 세대교체를 통한 약팀의 환골탈태는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결코 수월하지도 않다. 야구 관계자들은 "결국은 강팀이 세대교체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진만·김수경·오재영 발굴한 현대, 강했기에 가능했다

2000년대 초반 최고의 팀으로 군림했던 현대가 좋은 예다. 당시 현대 운영팀에 몸담았던 넥센 염경엽 감독은 "강팀이었기에 좋은 선수들을 술하게 키워낼 수 있었다"고 했다. 1996년 데뷔한 박진만은 신인 때부터 주전 유격수로 꾸준하게 기용됐다. 결국 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체 불가능한 '국민 유격수'로 성장했다. 염 감독은 "다른 8명의 타자가 안정적이고 강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다른 포지션이 탄탄하다면 한두 자리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원들을 믿고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가 김수경, 오재영, 이동학 등 선발투수 신인왕들을 꾸준히 배출한 것도 같은 이유다. "다른 선발투수들

이 강하다면 좋은 신인투수 한 명은 충분히 키울 수 있다. 한 시즌의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다 보면 선수들은 성장하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수 키운 삼성과 화수분 야구 가능한 두산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3연패를 달성한 삼성도 그렇다. 2009년부터 유격수 김상수를 계속 내보내 불박이 주전으로 육성해냈다. 올해 역시 중견수 자리에 유망주 정형식과 신인 박해민, 김현곤 등을 번갈아가며 기용해 자연스러운 경쟁과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나머지 8명의 라인업이 튼튼바퀴처럼 잘 갖춰진 삼성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 해설위원은 "두산이 자랑하는 '화수분 야구'도 기본적으로 강팀의 베이스가 갖춰져 있었기에 더 빛을 발했다"며 "강한 선수들 사이에서 기회를 잡고 성장한 선수들은 그만큼 더 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염 감독 역시 "주변 선수들이 강해야 그 안에 투입된 유망주도 함께 강해진다"고 했다.

●한화에 FA 정근우·이용규가 필요했던 이유

한화는 지난 몇 년 간 리빌딩과 세대교체를 '시도'만 했다. 지난해 말 영입한 프리에이전트(FA) 내야수 정근우와 외야수 이용규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선택이다. 한화 관계자는 "둘의 안타나 도루가 전부는 아니다. 다른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새로운 면을 느끼는 효과까지 기대했다"고 말했다. 한 해설위원 역시 "한화의 젊은 선수들은 김태균, 정근우, 이용규가 투수와 어떤 승부를 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타자들뿐만 아니라 투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척이고 유망주들만 대거 기용하는 인위적 세대교체는 결국 함께 제자리걸음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리빌딩도 이기면서 해야 성공한다"는 한 전임 감독의 말처럼, 강팀이 되려면 결국 함께 더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시간의 힘이 필요하다. 배경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9회말 2사 후 투수교체에도 예의가 있다

NC, 큰 점수차 리드서 상대 배려없는 교체 눈살
롯데도 9점차 리드 상황에서 마무리 김승희 올려



NC 김경문 감독이 5월28일 대전 한화전에서 17점이나 리드하고 있던 9회말 2사 상황에서 투수를 교체해 구설에 올랐다.

스포츠동아DB

●사례1=NC는 5월 28일 대전 한화전에서 18-1로 대승을 거뒀다. 전날에 이어 NC 타선은 이를 연속 18점이나 뽑아내며 한화 마운드를 초토화했다. 9회말 2사 후, 이대로 경기가 끝나나 싶었지만 NC는 투수 원종현을 빼고 마무리투수 김진성으로 교체했다. 17점 차이나 나는 경기였다. 더군다나 9회말 시작과 함께 등판한 원종현은 투구수 9개로 2타자를 상대했던 상황이었다.

●사례2=롯데는 1일 잠실 두산전에서 14-5로 크게 이겼다. 전날 역대 한 경기 팀 최다 안타(29) 신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방망이가 폭발한 롯데는 이날도 14안타 7사사구를 묶어 9점차로 크게 앞서 나갔다. 그런데 9회말 2사후 롯데는 투수를 강영식에서 마무리투수 김승희로 교체했다. 강영식은 투구수 7개로 2타자를 잡아낸 상황이었다.

누가 봐도 사실상 승부가 결정된 경기의 9회 2사후 투수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물론 해당 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두 팀 모두 이에 앞서 일정상 3연전(4일)을 쉬고 들어왔다. 마무리투수가 오랫동안 등판하지 못해 투구감각 유지 차원에서 등판한 것이라는 사실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무리 사정이 있어도 상대팀과 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필요하다. 역지사지다. 굳이 마무리투수의 투구 감각이 필요했다면 8회말 2사후 등판해 이닝을 종료하고, 9회에는 다른 투수가 1이닝 책임지는 방법도 있다.

특히 원정경기였다. 당시 한화팬과 두산팬의 심정은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의 투수교체는 팬들을 자극하게 된다. 초상집에서 나팔 부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홈팬들이 당장 오물을 투척하면서 그라운드에는

아수라장이 됐을 것이다. 원정팀 선수들은 경기 후 1~2시간 야구장에 갇혀 있었던 기억을 야구인이라든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최근 팬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 이제 이런 추태를 부리는 팬은 드물다. 그렇다고 야구인들이 팬을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터이다. 프로라면 이기더라도 품격 있게 이기고, 지더라도 잘 제어한다. 돈을 내고 야구장에 온 팬들을 생각해야하기 때문이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평균 경기시간이 3시간 26분으로, 역대 최장 시간 기록(종전 2009년 3시간 22분)을 갈아 치울 기세다. 극심한 타도저 추에 경기 시간은 엇가락처럼 늘어지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는 식으로 9회말 2사후 의미 없는 투수교체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 메이저리그라면 다음 경기에서 보복이 들어올 만한 자극적인 투수교체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위기의 두산 마운드...해결책은 1·2군 투수 선순환

팀 방어율 5.57...선발·구원투수 회전
노경은 등 체력 감소...2군서 올라와야

두산 마운드가 불안하다. 지금까지는 강력한 타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위험신호는 꾸준히 감지됐다. 2일까지 마운드 높이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방어율이 5.57이다. 9개 구단 중 한화(5.88) 다음으로 높다. 선발 방어율도 5.56으로 2번째로 좋지

않다. 상위권 4팀(삼성 NC 두산 넥센) 중 가장 나쁘다. 구원투수 방어율도 5.59나 된다. 프로야구의 심각한 타도저 현상으로 KIA(6.13), 한화(5.83), SK(5.74), 넥센(5.73) 등도 불펜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지만, 뒷문이 강하지 못하면 팀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두산은 5월 한 달간 투수력이 크게 흔들렸다. 이 기간에 방어율이 6.54로 한화(6.54)만큼 좋지 않았다. 팀 타율 0.337·30홈런·179타점을 낸 타선 덕분에 15승9패로 마감할



송일수 감독

수 있었지만, 5월 31일~1일 잠실 롯데전에서 타선이 주춤하면서 2연패를 당했다. 물론 선발진 중 더스틴 니퍼트와 유희관이 나 윤명준~정재훈~이용찬으로 이어지는 필승조는 건재하다. 그러나 노경은, 크리스 볼스테드 등 선발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력이 떨어지면서 4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이 시작될 만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명철 투수코치는

"2군에서 투수들이 올라와 쥘아하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됐다"며 "(김)강철이나 (홍)상삼 등이 공을 던지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1군과 2군의 선순환이 되면 한결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선발투수들의 분발도 촉구했다. 권 코치는 "꼭 우리 팀뿐 아니라 각 팀의 문제이기도 한데 선발이 무너졌을 때 투입되는 추격조가 역할을 해줘야한다"며 "지금은 그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선발들의 어깨가 무겁다. 특히 (유)희관이가 잘 해줘야한다"고 책임감을 부여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김영준의 와일드피치



최근 롯데는 선수들의 집단행으로 권두조 수석코치가 교체되는 등 내홍을 겪었다. 김시진 감독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스포츠동아DB

롯데 김시진 감독의 '3B-2S'

#두산 송일수 감독은 롯데 김시진 감독을 일컬어 "3B-2S 피쳐"라고 존칭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 배터리 시절인 1986년, 사직구장에서 볼넷 10개를 주고 이겼던 기억을 떠올린 것입니다. 투수 한 명이 단일경기 최다볼넷을 내준 역대 기록이 11개인데 김 감독이 1984년과 1989년 홀로 2차례 기록했습니다. 김 감독은 롯데 시절인 1989년 4월14일 사직 OB전에서 연장 14회까지 219구를 홀로 던져 승리를 따낸 추억을 낱알 얘기합니다. 그 등판 탓에 김 감독의 현역수명이 짧아졌다는 후일담이 빠지지 않지요.

#2013년 10월 김 감독 결에서 '외풍'을 막아주던 롯데 권영호 2군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수석코치에서 2군감독으로 '좌천'된지 불과 6일 만이었죠. 권 감독을 자른 다음날 롯데 신동인 구단주 대행이 코치진을 모았습니다. 기자는 그 자리에 김 감독이 불참한 것 같다는 '점보'를 입수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졌구나' 싶었는데 김 감독의 한 지인은 구태여 알아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단언하더군요. "장담컨대 김 감독은 그 자리에 와있을 것이다." 확인 결과, 김 감독은 역시나 신 대행의 부름에 응했더군요. 그 식사자리에서 신 대행이 김 감독에게 했다고 들려오는 '말들'은 굳이 옮기지 않겠습니다.

#타고난 승부사라면 나폴레옹의 경우처럼 "1%의 승률이라도 보이면 모든 것을 걸출 알아야" 합니다. 3B-2S에서 뒷일 생각지 말고 한복판을 찌르는 직구를 던질 수 있는 배포를 가지는 것은 확률이나 따지는 법인(凡人)은 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또 승부사라면 '사즉생(死即生)'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타이밍'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결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 2군감독이 경질됐을 때, 김 감독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그 이후 신 대행과의 자리에서 김 감독이 택한 '굴신'이 지금 이 '권두조 사태'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이제 롯데가 4강을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감독 김시진이 어떻게 기억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릇 군주는 미움 받는 것보다 경멸 받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충고 속에 김 감독의 활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감독 인생의 3B-2S에서 승부를 피하지 않는 리더 김시진의 결연함을 보고 싶습니다.

gal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넥센 박병호 '5월 MVP' 선정



넥센 박병호(사진)가 '2014 한국야쿠르트 7even'세븐 프로야구 5월 MVP'에 선정됐다. 박병호는 2일 열린 프로야구 출입기자단 투표에서 유효표 26표 가운데 14표(54%)를 얻어 5표(19%)에 그친 삼성의 외국인투수 릭 밴덴헬크를 9표차로 크게 제쳤다. 박병호는 5월 2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1(81타수 26안타) 14홈런 27타점 출루율 0.426, 장타율 0.877을 기록하며 홈런과 장타율 1위, 타점 공동 4위, 출루율 8위를 차지했다. 박병호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절반은 모교 영남중학교에 기부한다.

'발목 통증' 추신수, 워싱턴전 9회 대타로 볼넷 출루

텍사스의 추신수(32)가 2일(한국시간) 워싱턴DC의 내셔널 스파크에서 열린 워싱턴전에서 9회 대타로 출전해 볼넷을 고른 뒤, 대주자 닉 마르티네스와 교체됐다. 타율 0.289(180타수 52안타)를 유지했다. 추신수는 1일 워싱턴전에서 6회 2루타를 치고 1루를 밟는 과정에서 그동안 좋지 않았던 왼 발목을 다시 다쳤다. 그는 4월말 발목 통증으로 6경기에 결장한 바 있다. 텍사스는 일본인 선발투수 다르빗슈 유의 8이닝 5안타 2볼넷 12삼진 활약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한국야구위원회, 6월 나라사랑 캠페인 실시

한국야구위원회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사랑 캠페인을 벌인다.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나라사랑 주간으로 지정해 보훈가족 초청 및 시구행사, 관련 홍보영상물 등이 전광판에 노출되며, 현충일(6일)에는 조기 개장 및 경기 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세월호 희생자 애도 묵념을 실시한다. 9개 구단 선수단 및 심판은 5~8일 나흘간 유니폼 상의에 '나라사랑 큰나무' 엠블럼 패치를 달고 경기에 출전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표현하고자 함이다.